

II-8. 골이식재와 상피하 결합조직을 이용한 치조제 증대술

이용재, 권영역, 박준봉, 허 익, 정종역, 김재석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연구배경

상악 전치부에서 발치 후 치조제 붕괴가 동반되며 가공치를 이용한 고정성 보철물 장착 시 심미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치조제의 붕괴로 가공치의 모양과 크기가 인접 자연치에 비해 부자연스럽게 형성되며 이는 곧 환자의 불만족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붕괴된 치조제를 재건하기 위한 여러 술식이 소개되었으며 그 중 골이식재와 상피하 결합조직을 이용한 술식은 심미적으로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고 장기간에 걸친 안정성도 보이고 있다.

연구방법 및 재료

#21, #22부위에 Seibert의 분류 class III인 환자에게 골이식재와 상피하 결합조직 이식편을 이용한 치조제 증대술을 시행 2개월 후 재평가하였다. #22부위에 추가적인 수직적 증대가 필요하여 Vascularized Interpositional Periosteal Connective Tissue(VIP-CT)판막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증대술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2번의 치조제 증대술을 통해 심미적인 형태의 고정성 보철물 장착이 가능하도록 치조제의 폭과 높이가 개선되었다.

결론

골이식재와 상피하 결합조직을 이용한 치조제 증대술은 치조제 결손을 회복하는데 효과가 있었으며 주변조직과의 색조 조화도 우수했다.